



대한민국의 봄 이끈 촛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의한 권력'으로 규정하고 퇴진을 촉구한 시민들이 들어올린 촛불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차가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올린 주권자를 외면하고 박 전 대통령 편에선 일부 정치인들은 "촛불은 바람불면 꺼질 것"이라고 했으나, 지난해 11월 12일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은 100만 촛불로 광화문 일원을 가득 메웠고(왼쪽) 같은 달 19일 광주에서는 햇불로 커져만 갔다(가운데). 대통령 파면 결정 다음날인 11일 금남로를 가득 메운 광주 촛불은 이제 "박근혜 구속과 부역자 처벌, 재벌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 열망 모은 위대한 여정... 촛불, 역사를 만든다

시민의 힘 보여준 금남로 촛불집회 134일간의 기록

1000명으로 시작...광주·전남 70만 등 전국 1600만 참여 중학생도 시국선언...해학·풍자 결집인 집회문화 새 지평

60만2000여명, 4개월여동안 주말 금남로에서 촛불을 밝힌 광주시민들이다. 지난해 10월29일 1000명으로 시작한 광주 촛불행진은 1주일만에 5배로 불어났고, 6차때 15만명이 금남로에 운집하는 등 절정을 이뤘다. 촛불의 힘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이끌었다. 촛불집회는 최대 인파, 최장기간 집회, 대통령 탄핵 등 수많은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기훈·새누리당·재벌 등 부역자 처벌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시민의 힘'을 보여준 6차 이후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렇다고 촛불을 끈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25일 금남로 참가 연인원 50만명이 돌파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5만의 시민들이 '승리의 촛불'을 들었다. 촛불이 햇불로도 변했다. 4차 집회(11월 19일)에서 36년만에 햇불이 부활했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대성회가 재연된 순간이었다. 광주에서 처음 등장한 햇불은 전국으로 번졌다. 그리고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피의자'가 됐다.

60만2000여 촛불 금남로서 활활=광주 금남로에서는 134일 19차례 촛불이 타올랐다. 1000명으로 시작된 촛불은 1주일만인 2차 촛불에 5배(5000명)로 늘어났다. 참가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4차때는 이보다 14배 늘어난 7만명, 6차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5만명으로 불어났다. 시민을 금남로로 이끈 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박 전 대통령의 '3차 담화'였다.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금남로 1가 1번지 전 일빌딩에서 금남공원까지 발디딜 틈없이 들어섰다. 이날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넘어 구속과 처벌을 요구했고, 우병우·김

거문도 해상 시위, 416개 노랑풍선 날리기 등 시민들은 집회 때마다 시대정신을 가슴에 담았다. 마을에서도 촛불이 켜졌다. <안남·토론·축제의 장으로>=광주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은 광장으로써 역할을 톡톡히했다. 이 곳은 "이게 나라냐"라며 울분을 토해낸 '성토장'이자, 다양한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 '만남의 장'이었다.

광장 토론은 전남대 교수들로부터 시작했다. 1차(10월19일) 집회때 5·18민주광장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이에 호응해 대학 캠퍼스에는 대자보가 등장했다. 광주 중학생 50여명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2차 때는 고(故) 백남기 농민 장례 일정과 겹쳐 전국에서 농민·노동자들이 모여 들었다. 7차 집회(1월7일)때는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방송인 김제동씨의 사회 속에 진행되는 많은 시민들이 자유발언에 나섰다. 만민공동회에서는 313건의 의견이 표출됐다. 대통령 퇴진뿐 아니라 사회개혁, 적폐 청산이 등장했다. 해학과 풍자가 결집되면서 집회문화의 새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광주출정가 등 민중가요 부활>=박근

해 정권에 의해 배척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전국 촛불집회에서 부활했다. 주말마다 열린 촛불집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한 것이다. '광주출정가', '타는 목마름으로' 등 민중가요도 되살아났다. 민중미술도 힘을 보탤다. 80·9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대형 걸개그림이 등장했다. 시민을 하나로 묶는 노래도 만들어졌다. '아리랑 목동'의 후렴구를 개사한 '하야송'이 전국에 유행했다. 중독성 있는 후렴구를 반복하는 하야송은 집회의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대중가수 김장훈, 트로트가수 민성아 등이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민들을 더욱 끌어모았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금남로 시민들 서로 "고맙다" "수고했다"

마지막 촛불집회 '축제의 장'

지난 11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마지막 촛불집회는 축제의 장이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촛불이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냈고, 새 역사를 만들었다는 자축이었다. 그동안 긴장감과 엄중함을 잃지 않았던 얼굴 표정도 이날은 밝았다. 승리의 폭죽이 금남로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박근혜 파면 축하 19차 광주시국 촛불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광주시민 5만 3500명 등 전국 연인원 160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99%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제 시작입니다'였다. /김한영·전은재기자 young@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이끈 데 대해 시민들은 서로 "고맙다", "수고했다", "멋있다"며 인사를 나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이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했다. 사회자 백규림(46)씨가 "평화롭고 안정된 집회를 위해 묵묵히 힘쓰는 광주 경찰·소방관 여러분, 청소년들과 구청 관계자들 고맙습니다"고 발언하러 시민들도 합성과 큰 박수를 보냈다. 금남로 곳곳에서 떡과 전, 주먹밥, 불어빵 등 먹을거리를 나눴다. 먹을거리는 시민단체와 봉사단체, 사회적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했다. 그동안 주말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광주본부의 공동대표단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렸다. 대표단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며 "3월10일을 '촛불 혁명의 날'로 지정해 함께 촛불을 들자"고 제안했다. 광주본부는 4·16 3주기에 앞서 오는 25일과 다음달 15일에 촛불집회를 열어 세월호의 진실 인양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한영·전은재기자 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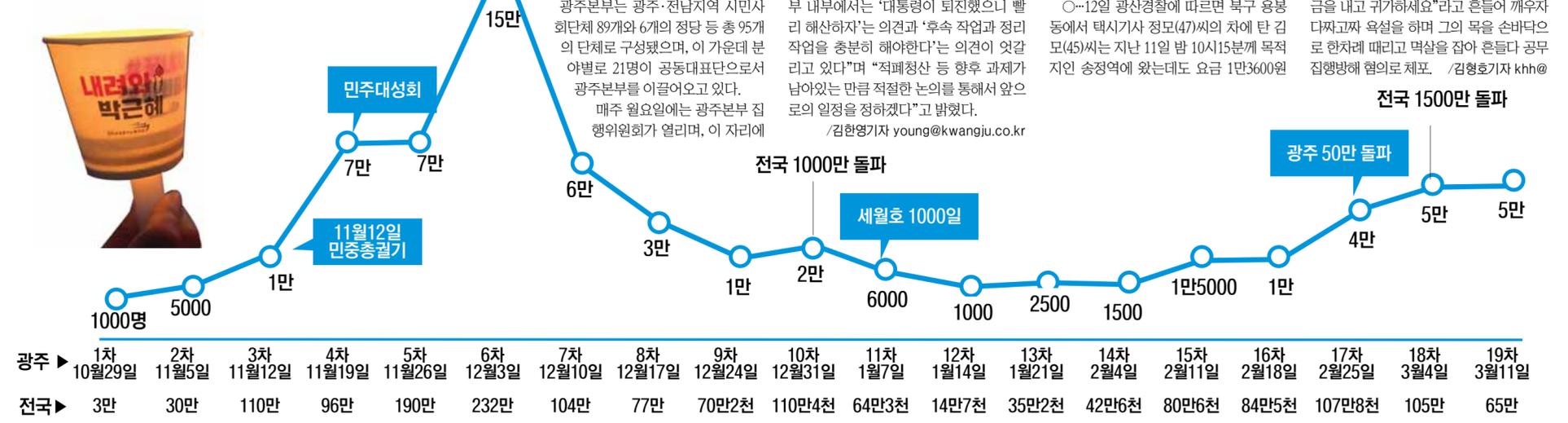
95개 단체 한마음... 촛불집회 원동력으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매달 회비 모아 비용 충당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촛불혁명 뒤에는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가 있었다. 광주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3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4개월 여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광주본부는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89개와 6개의 정당 등 총 95개의 단체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분야별로 21명이 공동대표단으로서 광주본부를 이끌어오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는 광주본부 집행위원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

선 주로 업무 및 사업 진행과 관련한 실행 계획이 논의된다.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의 거쳐 최종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 매주 금요일엔 촛불집회를 앞두고 최종점검회의를 통해 집회일정과 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광주본부의 운영자금은 계좌를 통한 시민 모금과 촛불집회 현장 모금, 광주본부에 포함된 단체들이 매달 5만~10만원씩 내는 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황성호 광주본부 상황실장은 "현재 본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퇴진했으니 빨리 해산하자'는 의견과 '후속 작업과 정리 작업을 충실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적폐청산 등 향후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적절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금남로 첫 촛불집회부터 탄핵 까지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의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Hye Eun Lee
2017 Dinner Show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